

보육교사의 언어발달지연 유아 선별에 따른 지원 실태와 요구 분석

Analysis on the Present Support Conditions Based on Screening
and Need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for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ed

이진경(Lee, Jin Kyung)* · 조윤경(Cho, Youn Kyung)**

본 연구는 보육교사에게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 중 또래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은 유아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들이 언어발달지연을 보인다고 선별한 유아 30명에 대한 언어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들의 선별은 관련 검사 결과 정확하였다.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의뢰한 보육교사의 선별기준과 자녀의 언어 발달지연에 대한 부모의 수용 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현 대처방안과 지원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10개 기관 13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육교사는 학급 내에서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결손을 보이는 언어특성과 부적응 행동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연된다고 의뢰하였고, 둘째,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무관심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서 교사에게 먼저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해 상담하는 등 다양하였다. 셋째, 보육교사는 학급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전문가와 기관의 지원, 언어발달에 대한 교사교육,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자료와 기준의 제시,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지원 요구를 제기하였다.

주제어: 언어발달지연, 보육교사 선별, 질적 면담, 내용 분석

* 제1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교수. ykcho@bible.ac.kr

I. 서론

보육은 2001년 말부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성애·김미경·유구종, 2005). 이에 따라 보육시설은 과거의 '아동을 위탁한다'는 단순히 보호해 주는 개념에서 벗어나 영유아들의 교육과 영양·안전·건강까지 담당하며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부모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자녀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자녀들도 또래들과 다양한 연령의 유아와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발달의 촉진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보육 통계(보건복지부, 2011. 4.)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8,02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279,910명의 영유아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기는 인간의 신체적·지적·사회·정서적 발달의 제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발달에 중요한 의미의 시기로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김지연, 2005). 따라서 보육시설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 되고 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유아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는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환경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주된 양육자라면, 보육시설에서는 교사가 유아의 주된 양육자이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발달 촉진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는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안전·건강 등의 심신 보호와 더불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업 습득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단순히 보호자 역할만을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수자·상담자·연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Katz, 1980). 이처럼 보육교사는 개별 유아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유아를 교육적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존재이다(백혜리, 2008).

보육시설의 증대와 유아 발달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등과 함께 초기에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나요?’(보건복지부, 2010)를 발행하여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예민성과 조기 개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도 발달지체를 새로운 장애범주에 넣어서 발달에 문제가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발달지체라 함은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 중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 2008)를 의미한다. 조기에 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도를 한다면 보다 장애로의 진전을 최소 중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이소현, 2006).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가변성이 가장 높고 후기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결핍은 후일에 보상될 수 없고 초기의 결함은 계속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발달 초기에 대처를 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이차적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조금희, 2007). 이를 위한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는 장애 또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단, 평가를 하여 그 결과와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신연지, 2009; 이소현·조운경, 2004).

유아의 발달에서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운동과 언어 발달 중에서, 본 연구는 교사와 부모의 관심이 특히 많은 영역인 언어발달에서의 지연과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의 언어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어휘를 획득하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며 언어를 구사하여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표현하면서 발전되어 간다(이영철, 2003). 언어는 유아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표현의 기초이며 자아개념과 사회적 접촉을 고무시켜 주는 수단이 되므로, 학급 내에서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는 우선 또래들과의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를 시도하는 기술과 빈도가 부족하고 또래와의 사회적 접근에서도 반응하는 기술이 부족하게 된다(Owens, 2001).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언어발달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발달에서 이탈하게 한다. 언어발달지연은 유아의 인지·언어·사회·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를 지닌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김영태, 2002). 무엇보다 먼저 유아기 때 습득해야 할 중요한 기술은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 중에는 언어발달지연과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유아가 상당수가 있으며(조금희, 2007),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들은 발음장애, 지능발달지연, 발달성 언어장애, 경련성 질환이 동반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정호 · 문한구 · 하정옥,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급의 유아들 중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유아를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한 해당 유아의 부모 상담과 학급에서의 교수 상황 그리고 교사의 지원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수적으로 교사의 발견 결과는 정확한지 확인하는 선별타당도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사의 선별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선별로 인해 유아에게 교수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보육교사의 선별기준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의 언어발달지연 보고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어떠한가? 셋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현재 보육교사의 지원 내용은 어떠한가?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지원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의뢰한 유아들의 발달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과 이러한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법과 지원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사전연구로 보육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언어발달지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그리고 사회성숙도를 측정하였다. 검사를 통한 언어발달지연 확인 후에 교사 면담을 통해 언어발달지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지원요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사 면담은 이러한 목적 하에 교사와 면담할 내용을 연구자가 사전에 개략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반구조화된 면담법(곽금주, 2002)을 시행하였다.

1. 사전 연구: 교사가 의뢰한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적격성 확인

1) 연구 대상 유아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10개의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만 3세 이하 영유아들 중 담임교사가 학급 내에서 또래들 보다 언어발달이 지연된다고 언어발달 검사를

의뢰한 영유아 30명을 대상으로 그 정확성 판별을 위해 시행하였다. 학급에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다고 담임교사로부터 언어발달 검사를 의뢰받은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을 보면 총 30명이고 남아 17명과 여아 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대략 35.5개월(범위: 29~45개월)이었다. 해당 학급은 만 2세와 3세반이었다.

2) 언어 발달 및 사회성숙도 검사

김영태·김경희·윤혜련·김화수(2003)가 제작한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SELSI)를 이용하여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를 검사하였다.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경우 단순 발달지연 일수도 있지만, 지적인 발달의 문제로 수용언어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적인 문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승국과 김옥기(1995)가 미국의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Doll, 1965)을 토대로 하여 개발한 사회성숙도 검사(Vineland Social Maturity Test; SMT)를 시행하였다. 사회성숙도검사는 유아의 경우 지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시행이 용이하여서 사용하였다(김승국·김옥기, 1995).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연구자가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가 의뢰한 유아들에 대하여 언어발달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유아들의 언어발달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의 결과는 유아의 담임교사의 면담을 위해 보육시설을 재차 방문할 때 담임교사들에게 결과지를 배부하여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특성을 교사로부터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교사 선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결과

언어발달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 해당 개월 수 등을 산정하였고, 발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언어발달 및 사회성숙도 검사 채점 결과

순 번	생활 연령	기 호	언어발달 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수용/ 표현	원점수	등가 연령	언어전반	사회 연령	사회성 지수	지적 발달
1	41개월	A-1	46/48	94	26개월	언어발달 지연	2.64	77	경계선급
2	42개월	A-2	44/46	90	24개월	언어발달 지연	2.23	63	지체
3	32개월	B-1	47/43	90	25개월	언어발달 지연	2.41	77	경계선급
4	35개월	B-2	48/43	91	25개월	언어발달 지연	2.32	80	경계선급
5	31개월	B-3	40/41	81	23개월	언어발달 지연	2.05	68	지체
6	29개월	C-1	45/37	82	23개월	언어발달 지연	2.59	108	정상
7	35개월	C-2	36/35	71	20개월	언어발달 지연	2.05	70	지체
8	35개월	C-3	46/41	87	24개월	언어발달 지연	3.19	110	정상
9	32개월	D-1	49/45	94	26개월	약간 지연	2.86	114	정상
10	30개월	D-2	42/35	77	21개월	언어발달 지연	3.12	130	정상
11	30개월	E-1	46/21	67	19개월	언어발달 지연	2.64	110	정상
12	32개월	E-2	54/23	77	21개월	언어발달 지연	2.68	107	정상
13	32개월	F-1	45/22	67	19개월	언어발달 지연	2.77	106	정상
14	31개월	F-2	40/42	82	23개월	언어발달 지연	2.59	108	정상
15	31개월	F-3	49/22	71	20개월	언어발달 지연	2.91	111	정상
16	32개월	G-1	47/44	91	25개월	언어발달 지연	1.71	65	지체
17	45개월	G-2	52/53	105	29개월	언어발달 지연	2.36	65	지체
18	30개월	H-1	35/16	51	14개월	언어발달 지연	1.73	69	지체
19	35개월	I-1	49/54	103	28개월	약간 지연	2.59	83	경계선급
20	40개월	I-2	53/49	102	28개월	언어발달 지연	2.45	73	경계선급
21	41개월	J-1	40/46	86	24개월	언어발달 지연	2.00	60	지체
22	41개월	J-2	53/46	99	27개월	언어발달 지연	2.64	80	경계선급
23	41개월	J-3	39/31	70	20개월	언어발달 지연	1.68	50	지체
24	41개월	J-4	43/40	83	23개월	언어발달 지연	2.41	73	경계선급
25	30개월	K-1	40/20	60	17개월	언어발달 지연	2.05	73	경계선급
26	43개월	K-2	43/49	92	26개월	언어발달 지연	2.36	65	지체
27	32개월	L-1	34/22	56	16개월	언어발달 지연	2.45	90	정상
28	36개월	L-2	45/50	95	26개월	언어발달 지연	2.82	80	경계선급
29	41개월	M-1	54/45	99	27개월	언어발달 지연	4.20	123	정상
30	41개월	M-2	53/43	96	27개월	언어발달 지연	4.00	117	정상
평균	35개월	-	-	-	23개월	-	2.55세	86.8	-

* A, B, C 등은 <표 2>의 연구 참여 교사의 기호이고, 1, 2는 해당교사 학급의 유아 수임.

영·유아언어발달 검사(SELSI)로 통해서 살펴본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은 평균 수용언어 45점(범위: 34~54점), 표현언어 38점(범위: 20~54점), 등가연령 23개월(범위: 14~29개월)로 나타났고, 수용언어가 표현언어 보다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모두 지연됨을 보였다. 사회성숙도 검사(SMT)에서 살펴본 유아의 사회연령(SA-social age) 평균은 2.55세(범위: 1.68~4.2세)이며, 사회지수

(SQ-social quotient) 86.8(범위: 50~123지능)로 나타났다. 넓은 범위 분포를 보이기 는 했지만, 자신이 연령보다 낮은 평균 사회연령인 100보다 낮은 평균 사회지수를 보였다.

보육교사가 의뢰한 유아는 모두 언어발달지연 뿐 아니라 지능 70이하의 정신지체 급이 9명, 85에서 71 이상의 경계선급 지능이 9명으로 지적인 문제를 수반한 경우도 60% 정도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보육교사의 관찰에 의한 문제 의뢰는 거의 정확한 장애 적격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 교사면담에 따른 내용 분석

1) 연구 참여자

언어발달지연 유아 관련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4곳과 민간보육시설 6곳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13명이다. 이들은 학급 내 언어발달지연 유아(<표 1> 참조)를 인식하고 연구를 의뢰한 담임교사들로,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 정보는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0.9세이며 학력은 대졸 10명, 초대졸 3명이다. 평균 보육경력은 8.1년이었다. 참고로,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관련 보육경력은 K교사 3개월 M교사 3년이다. 장애관련 연수경험은 A교사 8시간 B, C, D, E, F, G 교사 각각 40시간씩 연수 받았다.

<표 2> 참여한 보육교사의 배경정보

순번	연령(세)	성별	보육경력	학력	전공	담당 학급		장애관련 연수경험	기호*
						연령	교사 대 유아비율		
1	27	여	5년	대졸	영유아보육	만3세	2 : 30	8시간	A
2	28	여	6년	대졸	영유아보육	만2세	2 : 14	40시간	B
3	28	여	6년	대졸	영유아보육	만2세	3 : 21	40시간	C
4	31	여	7년	대졸	영유아보육	만2세	2 : 14	40시간	D
5	36	여	14년	대졸	유아교육	만2세	2 : 14	40시간	E
6	28	여	6년	대졸	아동복지	만2세	1 : 7	40시간	F
7	30	여	5년	초대졸	사회복지	만2세	1 : 7	40시간	G
8	29	여	6년	대졸	아동복지	만2세	1 : 7	없음	H
9	31	여	7년	대졸	영유아보육	만2세	3 : 21	없음	I
10	39	여	18년	대졸	유아교육	만3세	2 : 30	없음	J
11	37	여	9년	초대졸	유아교육	만3세	1 : 15	없음	K
12	31	여	10년	대졸	여성교양	만2세	2 : 14	없음	L
13	27	여	7년	초대졸	유아교육	만3세	1 : 15	없음	M

*기호는 뒤의 직접 인용문에서 해당 교사를 표기하기 위한 것임.

2) 자료수집 절차

(1) 면담 질문지 작성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기초배경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면담용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보육교사가 학급 내 또래들보다 언어발달 지연을 보인다고 선별한 유아들의 발달특성, 해당유아의 부모들의 반응, 유아의 특성을 배려한 학급 내에서의 교수내용, 교수와 관련된 지원요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에는 면담 대상자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보육교사 2명에게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 내용과 면담 진행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질문 내용을 일부 보완 및 협의과정을 가졌다.

(2) 면담 실시

면담은 연구자가 면담 참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개별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면담 대상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60분이었다. 면담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에 질문내용을 알려주어 참여자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면담 참여자의 하루 일과 중 여유가 있는 낮잠시간이나 귀가지도를 마친 5시 이후에 면담 참여자의 보육실에서 실시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질문이 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추후면담을 실시하였다.

(3) 면담 자료 전사

녹음된 면담 내용은 2명의 전사자들에 의해 면담을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녹음된 내용 그대로 전사되었고,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가 녹음을 들으며 전사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사된 면담 내용은 A4 용지,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의 형식으로 총 80장의 분량이 되었다.

3) 자료 분석

전사된 자료는 질적 분석방법의 하나인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부호화(coding)되었고, 부호(codes)들 간의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 범주(category)와 주제(theme)가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Lincoln & Guba, 1985).

먼저 13개의 전사본(transcripts)중 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자 두 명과 한 명의 보조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그 내용을 부호화한 후, 함께 모여 논의를 거쳐 첫 번째 부호집(codebook)을 작성하였다. 첫 번째 부호집에 정리된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면서, 새로 생성된 부호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부호들을 합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두 번째 부호집을 작성하였다. 모든 부호집은 부호(codes)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각 부호 옆에는 그 부호의 정의 및 그 부호를 잘 예시해 줄 수 있는 인용문(quotes)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전사본은 모두 부호화하였고, 주제별로 정리되어 최종적으로 5개의 주제와 23개의 하위주제로 정리되었다(<표 3> 참조).

4) 추후 확인 면담

내용 분석이 끝난 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면담참여자들에게 발송하고,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추후 확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후 확인 면담의 참여자들은 결과 요약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으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절차에 관련하여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5) 내용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이 재직하는 보육시설을 가능한 다양하게 선정하여 여러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두 명과 보조 연구자 한 명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관점에 의한 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논문의 저자들이며 보조 연구자는 영유아보육학을 전공한 보육시설장으로 하였다.

셋째, 추후 확인 면담(member check)을 통해 분석의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만한지에 대한 면담 참여자들의 반응을 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담당 유아의 언어발달지연을 의뢰한 교사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

절차를 거쳐 크게 (1) 발달지연 유아의 언어 특성 (2) 유아의 부적응행동 (3) 유아부모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 (4) 현재 지원 상태 (5) 교사의 지원 요구의 5개 주제(theme)가 도출되었다. 5개 주제는 다시 하위 주제로 나뉘었고, 하위 주제에서 직접 인용구는 그 주제에 대표적인 직접 인용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인용 괄호 안의 '교사 A 1;23-25'에서 A-M의 교사 기호를, 각 교사의 전사본의 페이지와 줄을 표시하였다.

<표 3> 각 주제와 하위 주제에 따른 인용구

주 제	하 위 주 제	인 용 구 예 문
1 발달지연 유아의 언어 특성	-발음문제 -내용전달의 어려움 -부정어 사용 -적합한 의사표현 방법의 어려움	교사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알맞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하고 발음도 월령에 비해서 듣기 힘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B, 1:23-24)
2 유아의 부적응 행동	-공격적인 행동 -분리불안 -회피 및 소외감 -위축된 행동	짜증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방법을 모르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치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H, 1:5-7)
3 부모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	-부모 무관심 -부모 단순지연 -부모 가정환경 문제 -부모 사전인지 -부모 지원 요청 -부모상담 못함	어머니가 발음 정확하지 않고 큰누나들이 있어서 그저 별로 언어가 느린 것에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차차 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누나들도 늦었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아요..(K, 1:27-2:1)
4 현재 지원 상태	-개별적 지원 -지원 안내 -지원 어려움 -지원 못함	어떻게 보면 00 가 다른 아이들 보다 좀 늦겠지...라고 생각이 들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싶어도 이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J, 4:2-3)
5 교사의 지원요구	-전문가 및 기관 -교사교육 -교수자료 -교사 대 아동비율 -선별 기준	제가 장애아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와는 줘야겠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답은 못 찾았거든요.(I, 3:3-5)

1.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보육교사의 선별 기준

보육교사는 유아의 언어의 문제 뿐 아니라 행동적인 문제도 동시에 보고하였다. 즉, 선별 기준에 언어발달과 행동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다.

1) 유아의 언어발달지연 특성: “발음, 내용 전달, 적합한 의사 표현 등 다양한 언어 문제를 보여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 중 언어발달지연이 있다고 인식한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유아들의 발음문제·내용 전달의 어려움·부정어 사용·적합한 의사표현 방법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사가 인식한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유아들은 발음문제(부정확한 발음, 개월 수에 비해 발달이 떨어진 어눌한 발음)로 인해 또래들과의 관계와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교사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알맞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하고 발음도 월령에 비해서 잘 발음도 듣기 힘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B, 1:23-24)

둘째,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유아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교사의 말을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OO 같은 경우는 우선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이란 다른 말들을 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그리고 그에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A, 1:9-11)

셋째,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유아의 표현에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싫다, 아니야, 긴 문장 안함)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OO 는 어울려 놀긴 잘하는데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말보단 행동으로 먼저 해요. “싫어, 아니야” 등 간단한 말만 하고 긴 문장을 거의 안하는 편이에요.(L, 1:14-15)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들은 적합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질문에 고개 흔들기, 눈 마주치지 못함, 큰 목소리, 반복적으로 말함,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 한 단어 표현, 수용언어 부족)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다.

혼자놀이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못해 “어-”, “우-” 등 한 마디를 자주 표현했고,(M, 1:6-8)

2) 유아의 부적응 행동 특성: “공격적인 행동, 분리불안, 회피 및 소외감, 위축된 행동 등 양극적인 행동 특성을 보여요”

언어발달지연을 나타내는 유아는 앞서 언급한 언어적인 특성과 함께,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해당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는 공격성, 분리불안, 회피·소외감, 위축된 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의 장난감을 빼앗고, 밀치고, 울고, 거친 행동, 과다행동 등 공격적인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다.

00는 언어가 느려서 그런지 거친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또래끼리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도 언어로 해결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많이 폭력적인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짓궂게 행동하기도 하고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행동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편이고요 규제나 통제를 좀 피하려고 해요. 이야기나누기 같은걸 하려고 자리에 앉도록 하면 막 돌아 다니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면 자리에 앉아 그냥 자는 편이에요. (F, 1: 6-12)

둘째, 언어발달지연이 나타난 유아는 부모와 헤어질 때 다른 정상발달 유아에 비해 과도한 불안감을 보였다.

계속 가정에서 엄마랑 지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랑 떨어진다든 불안감이 있어서 일단은 말을 하기보단 울음으로 많이 이야기기를 하는 편이에요.(J, 1:7-9)

셋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는 또래들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놀이하거나 회피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놀이하다 양보가 안 되고 언어로 양보를 구하지 못하고 물건을 빼앗거나 손부터 가서 아이들과 트러블이 많은 편이며, 혼자 역할 영역이나 구석진 곳에서 혼자 놀이 하는 것이 많고 자동차를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놀이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K 1:9-11)

짜증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하고 노는 방법을 모르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치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00는 친구들과 놀려고 하는건 데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불편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H, 1:5-8)

넷째,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유아는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눈치를 보는 위축된 행동을 보였다.

00이 같은 경우는 우선 눈치를 많이 봐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지적을 하면 뒷사람한테 이렇게 숨는다거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행동을 조금 많이 하고요.(I, 1:7-8)

2. 부모 상담을 통한 유아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파악

교사의 유아 문제 발견 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유아의 상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공유 과정이다. 교사가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유아 부모들에게 자녀의 현재 언어 상태에 대하여 상담했을 때 나타난 부모들의 반응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무관심·자녀의 언어발달은 단순지연·가정환경 문제·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하여 사전 인지·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교사가 부모에게 상담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체된다고 상담을 받은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00의 어머니는 친인척관계 중에서 언어가 좀 느린 분이 계셨다고 얘

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아직 세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가 지나도 언어가 잘 안되면 검사를 해 볼 생각이고 어머니 생각으로는 검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야기 하고 계세요.(F, 1:25-27)

둘째,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 유전적 요인 즉, 집안의 내력으로 보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집안에 형제들이 좀 늦었다고 집안 내력이라고 나중에 가면 말이 트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형들처럼 나중에 확 트인다고 하시면서 조금 걱정하는 표정은 했지만...그래도 나이가 들면 괜찮아 진대요.(K 1:22-23)

셋째, 부모는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이유가 가정환경에 따른 문제이며, 가정에서 유아를 과잉보호를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하였다. 즉, 이 문제 해결 시 언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였다.

아무래도 00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도 엄마가 아기처럼 다 받아 주고 자기 자신도 그냥 아기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자기는 아기라고 친구들에게 표현하기도 하고(G, 1:6-8)

집안 사정이 조금 아빠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빠가 큰 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인지 00가 약간 위축되고 불안해 하고 가끔씩 바지에다 실수를 해요.(H, 2:3-6)

넷째,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을 사전에 부모들이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

어머님들도 알고 계셨고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 00 언제 말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어요(E, 2:5-6)

다섯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부모들이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먼저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00 어머니도 그 부분을 본인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할까요?” 자문을 구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집에서 잘 들어주시고 대신 짧은 말로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A, 2:8-11)

여섯째, 학급의 담임교사가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 부모들의 반응이 염려가 되어 부모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했을 때 기분을 나빠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요.(I, 3:17)

3.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현재 학급 내 교수 지원 상황

보육교사는 학급 내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학급 내에서 개별적인 지원·보육시설 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지원이 어려운 경우·지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첫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인식한 교사는 현재 해당 유아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야기할 기회 제공, 좀 더 많은 관심, 교사와 일대일, 기분파악, 정확한 발음, 긍정적인 반응, 모델링, 반복 들려줌, 질문과 답변 유도)을 하고 있었다.

00의 경우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고요.(C, 1:18-19)

일부러 00한테 말도 많이 시켜주고 “00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00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놀이를 못했을 적에 “00야 친구들과 하고 이것도 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지도하지 못했어요.(G, 1:13-16).

일부러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00야,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00가 집에서 했던 활동

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00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시키긴 했는데 그때 00의 대답은 거의 단답형이에요. “했어, 안했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긴 문장보단 짧은 단답형의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00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제가 말을 많이 시키는 것 밖에 없었어요.(I, 1:20-26)

둘째,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 내외로 도움을 요청(시간 연장 교사에게 요청, 교사회의, 장애통합 교사에게 요청, 다른 교사에게 요청, 복지관 언어치료실, 문화센터)하거나,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를 하고 있었다.

장애통합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 받는 편이에요. 저 혼자 그 아이를 관찰했을 때는 제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00를 관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D, 2:2-3)

저희 어린이집 2층이 복지관이라서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00를 데리고 한번 검사를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복지관을 찾아 가셨거든요.(H, 1:24-25)

셋째,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학급에 일반유아 많음, 해당 유아의 무반응, 거침없는 감정표현, 산만함, 일반유아와의 수준차이, 해당 유아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보육현장) 응답도 많았다.

지금 저희 반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조금 개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지만, 특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A, 2:24-25)

어떻게 보면 00가 다른 아이들 보다 좀 늦겠지...라고 생각이 들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싶어도 이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J, 4: 2-3)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하여 보육교사가 개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00 랑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00 가 놀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관계는 되었어도 00 를 위해 제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못했던 거 같아요.(I, 2:26-8)

그 아이들한테 배려를 할 순 없고 일반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활동 할 때만 가서 도와주고 이야기 나누거나 대집단 활동에선 그 아이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K, 2: 18-20)

4. 언어발달지연 유아 지원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

보육교사의 개별적인 지원요구로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및 기관 필요, 언어발달에 관한 교사교육,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자료,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선별기준을 이야기 하였다.

첫째,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멘토 같은 전문가 필요)와 기관(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 언어전문 기관)을 필요로 하였다.

이런 발달이 늦은 친구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교사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부모님과의 면담 할 때도 저의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지표도 필요하긴 할 거 같고 그리고 정말로 기관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지도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어려웠던 거 같아요.(C, 4:2-8)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언어 표현을 못하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성격 형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래들 하고도 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성 문제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K, 2:24-27)

둘째,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에 관한 교사교육의 필요성(학부에서의 교육, 장애아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러한 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교육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답답했어요(E, 3:11-13)

제가 장애아의 대한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와주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겠더라는 답은 못 찾았거든요.(J, 3:3-5)

셋째,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현재 상황에 적절한 자료(교수자료, 언어영역별 자료)를 필요로 하였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00가 못 따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수자료 던지 좀 있었다면 나왔을 수도.....(G, 2:15-16)

저희가 영역별로 말하기 쓰기 다 있다고 하지만 자료들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거 같아요.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K, 3:26-27)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일대 일)을 중요 요소로 꼽았다.

00 같은 경우에는 일 대 일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는 여러 명이 함께 있다 보니까 00 랑은 일 대 일로 그 애만 배려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어렵네요. 계속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00는 기본생활습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다 해주시는 편이라 00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조금 조금씩 바지 올리는 것이든지 이런 걸 연습시키고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가정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C, 3: 19-23)

다섯째,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선별 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언어장애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특히 보육교사가 장애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을 때도 시설에서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어와 정서랑도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사가 판별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충분했으면(B, 4:3-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10개의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이하의 유아들 중 담임교사가 또래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다고 인식한 유아 30명과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 13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언어발달지연 유아들에 대한 선별과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실태 및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에게는 언어발달지연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언어발달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지향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선별기준으로,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부정확한 발음(음운론)·의사소통할 때의 내용 전달의 어려움(의미론, 구문론)·부정적인 언어 사용 그리고 적합한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화용론)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 특성을 제시하였다. 즉, 교사는 언어의 구성 요소인 음운과 구문·의미·화용 등의 측면에서 지체를 보이는 유아를 선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별 기준은 김유정·배소영(2004)의 연구에서 단순 언어 장애 아동들의 낮은 언어적 기술이 산출 및 회상에서의 낮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이효진(2001)의 연구에서의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은 정상아동보다 대화의 발화 수가 적으며, 성인과의 대화에서도 대화에 대한 반응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과 표현언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숙(2010) 연구 결과와 단순언어 장애 아동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화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상아동과는 달리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한 Fey & Leonard(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영태, 2002, 재인용). 조금희(2007)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언어는 발음이 불명확하며 언어의 이해

와 수용이 전반적으로 낮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치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인식한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정확성 확인에서 영·유아언어발달 검사 결과 생활연령이 35개월인데 반해, 수용언어(평균 24개월)가 표현언어(평균 20개월)보다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언어발달지연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사회연령(평균 2.55세), 사회성 지수(평균 86.8)로 나타났다. 영·유아언어발달 검사에서 '언어발달지체'로 선별된 유아 중 60%는 지적문제도 함께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가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관찰 보고한 유아의 경우 모두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유아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아의 발달관찰에서 정확하게 행동을 측정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에게 있어 최초의 발달 관련 문제 발견자는 영유아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들은 대부분 또래의 장난감 등을 뺏고, 밀치고, 울고, 거친 행동, 과다행동 등 공격적인 행동이 많았고, 분리 불안과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놀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눈치를 보는 위축된 행동과 의사표현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한 문제행동과 부정적인 의사표현 방법의 사용 등을 보인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김혜원, 2003; 송민경, 2008; 임명희, 1998). 유아 언어발달지연이 초래하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보이는 공격행동으로써, 유아기 공격성은 안정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그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ubin, Stewart, & Chen, 1995). 언어발달지연과 함께 보고되는 이러한 행동적 특성은, 유아의 경우 한 발달 영역에서의 문제가 여러 발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발달 영역에서의 문제가 다른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달에 이상을 보이는 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에서의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18개월부터 5차례에 걸쳐 발달 평가를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2008-2009년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K-ASQ) 결과 발달지연 아동이 0.95%로서 년 간 6~7천 명의 아동이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전체 영유아의 43%인 117만명이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보건복지부, 2010), 약 2,580명~3,010명 정도의 발달적으로 문제

를 보이는 영유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조기 선별하기 위해서, 최초의 문제 발견자 중에 하나인 보육교사에 대한 영유아 발달 관련 양성과정 교육과 직무연수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가 인식한 언어발달지연 유아 부모들의 태도는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집안의 내력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을 사전에 부모들이 먼저 인식하고 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부모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모들의 거부 반응이 염려가 되어 부모 상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유아 언어발달에 가정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특히 부모의 유아 언어 발달에 대한 예민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양육지원의 한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한다(조금희, 2007; 최은정, 2009).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부모가 수용이 안 되는 경우 교사는 유아교육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숙, 2002). 이는 교사가 문제를 발견한 유아의 경우, 부모가 진단 기관에 가지 않는 한 발달지연을 알았더라도 교사가 조기 선별과 지원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하고 부모들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부모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현재 보육교사의 지원 상태로는, 보육교사는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를 위하여 학급 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아의 언어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보육시설 내부 지원과 외부 기관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는 언어장애가 있을 때 교사는 부모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조금희(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현재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발달에 문제가 있는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소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 지원 체제 내에서 이는 불가능하며,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2007)'에서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을 받아서 교사 대 아동비가 1:3인 통합아동으로 입소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부모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을 동의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전문적 지원도 안내할 수 있다.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관 및 언어치료실 등과 보육시설 간의 연계를 구축하여 교사가 발견한 유아를 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간 의뢰 체계 조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박소현,

2007; 조금희, 2007).

다섯째,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지원 요구는 유아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 및 기관이나 언어발달에 대한 교사교육, 지원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 언어발달 기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선행연구들(박소현, 2007; 조금희, 2007; 정은희·유경, 2009)이 제안한 의사소통 장애 유아의 교육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전문가와의 협조,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 등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언어문제가 있는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학급에서 언어지원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Cooper et al., 1998; Cleary & Mcfadden, 2001; Marchant, 1995; McCartney, 1999; Throneburg et al., 2000). 특히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아동의 특성 이해에서의 자신감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요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원내의 지원만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 전수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지원인 전문 장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조윤경·김수진, 2010).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위해 보육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유아기에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조기에 제공해 줌으로, 보육교사는 유아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진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되어야 할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10개 기관 13명의 보육교사와 언어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개별면담과 유아에 대한 직접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일반유아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의 언어발달 검사와 사회성 검사에만 국한되었지만,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에 대한 연구와 유아의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 때 언어발달지연으로 나타나는 제 2차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차후 조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연을 보인 유아의 학급 담임교사의 지원요구를 살펴 보았으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언어발달에 대한 지원을 받은 후에 학급에서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언어실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에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사전, 사후의 양적 연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2002). **아동 심리 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미숙 (2002). 가족참여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조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국, 김옥기 (1995).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 김영희 · 윤혜련 · 김화수 (2003).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유정 · 배소영 (2004). 학령 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17(1), 41-58.
- 김정호 · 문한구 · 하정옥 (1991). 소아 언어발달지연의 연구. **영남의대학술지**, 8(2), 24-34.
- 김지연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03). 이야기 책을 이용한 기능적 읽기 중재가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의미관계 확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07). 장애유아 통합교사를 위한 언어치료 지원요구 분석 및 교사지원교육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리 (2008). **보육교사론**. 서울: 동문사.
- 보건복지부 (2010). **선생님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나요?**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1. 4). **2010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9).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효과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송민경 (2008). 단순언어장애 대화의 말차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지 (2009). 발달지체 영·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 안에서의 미술치료 필요성 및 실태 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현 (2006).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 요소: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 이소현·조운경 (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욕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1), 103-151.
- 이영철 (2003).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자연적인 언어중재의 고찰. *정신지체연구*, 5, 17-34.
- 이효진 (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 대화의 말차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10).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언어적 비유창성 특성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희 (1998). 유아의 문제 행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5(1), 151-214.
- 정은희·유경 (2009). 특수교사의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교육지원 요구 조사. *특수아동교육연구*, 11(2), 53-73.
- 조금희 (2007). 아동언어장애와 언어치료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김미경·유구중 (2005). 영유아교사의 현직교육과정 운영.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9(1), 129-156.
- 조운경·김수진 (2010). 통합 실행에 대한 장애전담교사의 자기 평가와 순회지원교사의 관찰 평가.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217-238.
- 최은정 (2009).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담화능력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leary, P. & McFadden, S. (2001). Helping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3(Supplement), 31-34.
- Cooper, M., Pettit, E. & Clibbens, J. (1998). Evaluation of a nursery based language intervention in a socially disadvantaged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3(Supplement), 526-531.
- Katz, L. G. (1980). Mothering and teaching-Some significant distinctions.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47-6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rchant, C. (1995). Teacher's views of integrated preschool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9(1), 61-73.
- McCartney, E. (1999). Barriers to collaboration: an analysis of systemic barriers to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and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4(4), 431-440.
- Owens, R. E. (2001). 언어발달(*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5th ed.*). 이승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1. 1.(pp. 255-284) NJ: LEA.
- Throneburg, R. N., Calvert, L. K., Sturm, J. J., Paramboukas, A. A. & Paul, P. J. (2000). A comparison of service delivery models: effects on curricular vocabulary skills in the school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9(1), 10-2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creening and its validation of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in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the response of parents with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and the assistance need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for those children. Teacher interview with semi-structural method, transcription and content analysis method were use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 teachers and 30 infants and toddlers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in 10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in Seoul.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screened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in their classes based on their verbal characteristics and maladjusted behavior. Their screenings were turned out correct. Second, as for the response of parents, the parents who had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were indifferent, were aware of the fact in advance or asked the teachers for counseling on thei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Third, the teachers couldn't provide the appropriate supports for the children in needs. Fourth, regarding the assistance needs of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they called for assistance from specialis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wanted to receive education on language development. Besides, they asked for relevant supporting materials and screening criteria, and considered it necessary to reduce the ratio of teacher to children.

Key Words : language developmental delayed,
screening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
qualitative interview
content analysis

2011. 06.23 투고 : 2011. 09. 14. 수정원고접수 : 2011. 11. 27. 최종게재결정